

서금원과 신복위에 대해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양대 축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각각 '사후 구제'와 '사전 예방'이란 역할을 맡고 있다. 겉으로 보면 촘촘한 안전망 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두 제도 사이의 간극이 오히려 취약계층을 사각지대로 밀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설계가 여전히 '단절적'이라는 점이다. 서금원은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하며 연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상황에 실패한 이용자는 미흡한 연계 시스템 속에 신복위로 이동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유기적으로 설계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원 조건과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경험'을 준다.

'사후 대응 중심'의 구조도 한계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지

만, 이미 신용이 훼손된 이후에 작동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특히 최근 채무조정 이용자의 40% 안팎이 39세 이하 청년층이란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연체 이후가 아니라 연체 이전의 금융 환경에 있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자산 축적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기존의 채무조정 중심 정책은 '늦은 처방'일 수밖에 없다.

정책금융의 공급 방식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 서금원의 상품은 금리 부담을 낮춰주지만, 여전히 '대출'이란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계층에게 또 다른 부채를 제공하는 방식에 가깝다. 특히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나기 직전의 차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상환 여력이 취약한 계층에게는 문제를 이연시키는 효과에 그친다.

급변하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반영 부족도 문제다. 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 등),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소득 변동성이 큰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책은 여전히 정규직 중심의 소득 안정성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책의 '연

결성'을 강화해야 한다. 서금원과 신복위를 단순히 역할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지원 체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의 금융 상태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사전 예방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저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소득 기반 상환(Income-Contingent Repayment) 모델이나 일정 수준의 채무 탕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결국 서민금융 정책의 핵심은 '빚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빚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정책의 방향을 '구제'에서 '예방'으로, '단절'에서 '연결'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서민금융은 이름만 남은 안전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서금원, 신복위의 '전시 행정', '쇼핑 행보'도 사라져야 한다. 성과 중심보다 홍보 중심이란 인상을 준다. 서민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은 통치자와 정치인, 일반인에게 보여주기식 행보가 필요 없다. 기관장의 '사진 찍기' 반복과 홍보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대학만 바라보는 진로교육... 직업교육부터 살려야



이지수첩
이 현 진
(정책사회부)

서울시교육청이 2일 발표한 '서울학생 진로·진학 지원 강화 계획'은 입시 불안과 사교육 의존이 커진 현실에 대응해 공교육의 진로·진학 지원 기능을 넓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로·진학 상담 인력을 늘리고, 고교학점제에 맞춘 진로 설계를 돕는 등 학교 안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분명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의 배경에는 대학 진학에 편중된 진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핀란드의 직업계고교 진학 비중이 40%대인 반면 한국은 10%대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이는 핀란드에서는 대학 외

진로가 실제 선택으로 작동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택이 대학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진로교육이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교는 진로를 말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끝내 묻는 것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느냐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서울시교육청도 직업교육 경로를 넓히는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서울학생 직업교육 계획(가칭)'도 마련 중이다.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찾아가 직업교육의 특성을 체험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방향은 맞다. 다만 단순 홍보나 체험 확대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 대학 진학에 편중된 구조를 바꾸려면 직업계고와 직업교육 경로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직업계고를 '차선책'

이 아니라 하나의 경쟁력 있는 경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존의 직업 서열이 더는 절대적이지 않다.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직업도 기술 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유망 학과와 직종의 선호도도 빠르게 달라진다. 그래서 공교육은 학교나 학과 선택에 따른 특정 진로를 정답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변화 속에서 선택하고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한국 공교육 체계도 이런 방향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진로교육은 입시 상담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교육이어야 한다.

결국 진로교육을 살리는 일은 상담 인력을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대학 진학에 편중된 구조를 바꾸겠다는 문제의식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직업계고와 직업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분명한 진로 경로로 자리 잡아야 한다.

/lhj@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3일 (음 2월 16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차분한 운기가 느껴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60년생**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하세요. **72년생** 부업에 도전해 보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84년생**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 하루입니다.



49년생 그룹에 행운이 있는 날입니다. **61년생** 평소와는 다른 애정표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3년생**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활약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85년생** 본업에 신경을 쓰세요.



50년생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움직이세요. **62년생** 친구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4년생**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86년생** 차분함과 침착함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51년생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도록 하세요. **63년생** 바라는 것이 매우 잘 풀리는 하루입니다. **7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세요. **87년생** 희망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52년생 뭔가 빠진 듯한 기분이 들기 쉬운 하루입니다. **64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76년생** 본인도 모르게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88년생** 즐거운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53년생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65년생** 업무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77년생**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이성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89년생** 여행을 떠나면 좋습니다.



54년생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66년생**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78년생** 노력을 해보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90년생** 천천히 여유로운 자세로 일처리를 하세요.



55년생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67년생**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큰 행운이 있습니다. **79년생** 연인을 만들고 싶다면 나름대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91년생** 자기 자신을 꾸미는 일이 중요합니다.



56년생 자신을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68년생** 뒤에서 밀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0년생**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92년생** 항상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57년생 화해를 하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세요. **69년생** 음양의 화합으로 사랑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할 운입니다. **81년생** 연애운이 굉장히 좋은 하루입니다. **93년생**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58년생 안으로 손해와 좌절이 숨어있는 시기입니다. **70년생** 스스로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합니다. **82년생**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94년생** 들뜨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59년생 문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71년생** 지금은 융통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83년생** 행동 가짐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95년생** 뒷사람에게서 좋은 기운을 받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인생의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놀이공원에서 가장 박진감 있고 스릴 넘치는 경험을 선사하는 롤러코스터는 우리나라에서는 청룡열차가 그 시조일 것이다. 리프트가 열차를 천천히 끌고 올라가다가 정상에서 위치에너지를 관성적으로 바꾸면서 급속도로 떨어지는데, 레일이 360도로 도는 구간에선 기차가 거꾸로 돌기도 한다.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용해 승객이 밖으로 튀어 나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보통 답력이 아니면 즐기기 어려운 놀이기구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노약자와 임산부, 너무 어린아이들이나 일정 키 이하는 롤러코스터를 탈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놀이기구로서는 스릴 만점이지만, 롤러코스터의 특성을 인생의 굴곡에 비유하기도 한다.

천천히 일정한 속력으로 오르는 구간은 인생의 평탄한 시기로 보는 것이지만 정상에서 방향을 바꿔 갑자기 낙하하는 것이 정점에서 바닥을 향해 낙하하는 인생 굴곡을 표현하기에 딱 들어맞기 때문일 것이다. 유의해볼 것은, 저점을 찍어야 반등하는 원리처럼 인생사 역시 바닥을 치고 나면 그때는 다시 올라갈 시점이니 인생역전이란 말이 나온다. 새옹지마(塞翁之馬)나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롤러코스터와도 비유가 되는 이유이리라.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뉜다. 재실패가 두려워 멈추거나 아니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를 발판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은 중도에서 멈추는 일이 많지만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생의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과실을 딴 것이다.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놀이공원과는 차원이 다르기에 시간과 노력 대비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이 보통의 마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7	6	2		9		
			4		1			8
1								
	7	8				1	5	
2								9
	6	4				7	3	
								3
8			5		9			
	5		2	8	7	9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월드레코드를 달성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1	6	2	8	7	9	9	8
2	2	9	6	8	9	1	7	8
8	8	9	9	7	1	2	6	2
2	8	2	8	1	6	7	9	9
6	7	8	9	2	9	8	1	2
9	9	1	7	2	8	8	2	6
9	9	7	8	6	8	2	2	1
8	2	2	1	9	7	6	8	9
1	6	8	2	9	2	9	8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8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8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